

유연탄 파동오나...

시멘트·물가 등 '도미노 상승' 불러
(2008. 7. 29)

유연탄 가격이 사상 처음 톤당 200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시멘트 등 관련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중이다. 특히 국제적인 수급구조 악화로 내년에도 가격 폭등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유연탄발 원가폭등이 우려되지만 수입의존도가 전량에 가까워 공급처 다변화 외에는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연탄 가격은 2005년말 48달러에서 최근 205달러로 5배 가까이 치솟아 고유가·고환율과 함께 업계의 목을 죄고 있다.

■사상 초유 '유연탄 파동' 오나

세계 유연탄 생산기지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 등이 재고량 부족과 자연재해 등으로 수출물량을 크게 줄인 반면 일본이 지진 피해로 석탄발전소 가동률을 높이는 등 전세계적으로 공급은 크게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고유가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석탄이 부상하면서 수요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수급구조 역시 어둡긴 마찬가지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 유연탄 사용량이 2006년 7,799만톤, 2007년 8,443만톤에서 올해는 9,000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 1.7% 증가로 오는 2012년에는 9,765만톤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유연탄 가격은 끝이 어딘지 가늠조차 안되고 있다. 울들어서만 100% 가량 오를 정도로 폭등세를 이어가자 관련업계와 정부도 가격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시적 상승세가 아니라 중장기적 상승세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내년에는 300달러 돌파도 예상돼 사상 초유의 유연탄 파동이 우려되고 있다.

■물가상승 부채질, 관련업계 비상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동기대비 20% 이상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0%가 넘는다. 하지만 업계는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유연탄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없을 뿐더러 시멘트업계 전체가 연간 수입하는 유연탄 물량이 600만t 정도여서 구매자 파워도 없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도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다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연탄 대신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환경 문제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문제를 입밖에 내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업계는 결국 유연탄 가격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시멘트 가격 인상과 건축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연탄 가격 상승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 다음달부터 전기료를 평균 5% 인상한 배경에는 주요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 폭등이 자리잡고 있다.

한일시멘트, 단양에 주민 휴식공간
(2008. 7. 30)

한일시멘트(주) 단양공장(공장장 원인상)이 매포읍 평동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 휴식공간은 평동리 매포천변에 조성된 것으로 지난 28일 한일시멘트에서 600만원을 투입 원목 야외테이블과 파라솔 등 16세트를 비치했다. 원인상 공장장은 "매포천변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고 느티나무가 우거져 여름철 지역 주민들의 나들이 장소로 즐겨 찾고 있지만 의자 등 편의시설이 부족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휴식공간을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 김모씨는 "느티나무 그늘과 함께 맑은 하천이 위치해 남녀노소 모두가 애용하고 있다"며, "도심속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2000억 신광산개발'
난제 풀었다
(2008. 8. 4)

동양시멘트가 1996년 개발계획 수립 12년만에 2,000억원 규모 석회석광산개발의 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동양시멘트는 이르면 2010년부터 연간 1,110만톤의 생산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동양시멘트는 최근 삼척시 근덕면 금계리 주민들과 식수원, 이주대책, 친환경조성 등에 관해 최종 합의했다. 주민들은 농성을 철수했고 양측의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동양시멘트는 금명간 이 지역에 채광 석회석을 운반하는 벨트컨베이어 시설에 필요한 도로 및 터널 개설 공사에 착수한다. 동양시멘트는 지난 1996년부터 기존 광산의 석회석 자원 고갈에 따라 근덕면 교곡리와 금계리 일대 178만 6,000㎡(54만평), 약 2,000억원을 투입, 2010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30년간 3억톤의 석회석을 채광하기로 했다. 1999년부터 인허가에 착수해 2003년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시설설계와 시설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등을 완료하고 공장부지 조성공사에 나섰다. 지난 3월에는 관리도로 개설과 터널공사를 진행했다가 벨트컨베이어 시설이 지나가는 근덕면 금계리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양측의 협상은 난항을 겪으며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가 4개월여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주민들이 삼척시 상수도 공급 혹은 지하수 개발을 요청하면 동양시멘트는 주민회의에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터널이 금계리 지역과 가까워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는 이주를 약속했다. 주변지역에 나무를 심어 친환경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육관을 건립해 주민 복지시설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신광산은 특히 석회석분쇄기를 터널내에 설치해 소음을 방지하고 친환경공법의 채광방식으로 공해요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운반시설도 무소음 무분진 벨트콘베어를 도입해 공해요인도 제거하고 자연경관 훼손도 막는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신광산이 개발되지 않으면 2010년부터 석회석 원료 공급의 부족으로 수출시멘트 생산중단 및 국내용 시멘트 생산이 매년 약 20%씩 감소될 처지였다”며 “이는 협력사 및 도급사를 포함한 약 2,000여명의 고용유지가 어려워지고 국가경제 및 삼척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레미콘연합회장에 이종화씨

(2008. 8. 8)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신임 회장에 화천 레미콘 이종화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연합회는 8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소재 리베라 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 보선을 치렀다. 선거에서 이회장은 재적 대의원 72명 중 참석한 대의원 62명(2명 기권, 2명 무효)으로부터 39표를 획득, 19표를 얻은 달성레미콘의 서사무 대표를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서 신임 이회장은 지난 17년간 협회장을 맡았던 류재필 전회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오는 2011년 2월(정기총회)까지 협회를 이끌어가게 됐다. 이 회장은 1933년생으로 신공항레미콘 대표이사 겸 회장 및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중고생 기업체험 프로그램 인기

(2008. 8. 15)

중견, 중소기업들이 청소년 직장체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동안 대학생 인턴 위주로 열렸지만 청소년 경제교육이 강조되면서 중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고생들의 기업체험 프로그램이 늘고있는 것이다. 임베이드 개발업체 MDS테크놀로지는 최근 방학을 맞은 중학교 2학년부부터 고3 학생들이 구로동본사를 방문해 사장님으로부터 강연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총 19명의 청소년들은 이 회사 이상현 사장으로 부터 ‘꿈과 열정’을 주제로 강연을 듣고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회사는 사내 카페인 ‘테라’의 커피 판매금을 모아 학생들에게 아이리버 MP3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시멘트업체인 쌍용양회도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종합기술훈련원을 해마다 개방, 여름이 되면 인근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실을 연다. 올해는 지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 동해 종합훈련원에서 4일간 과학교실을 개최했다. 40여명의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한지공예교실을 열었고 탁구교실, 컴퓨터교실 등도 해마다 열었다. 쌍용양회 관계자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이 빈약한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있다”며 “지역 부녀회와 의견 교환을 통해 해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역 사회에 공헌할 것이다”고 말했다.

라파즈, 춘천서 ‘사랑의 집짓기’

해비타트 운동

(2008. 8. 25)

라파즈코리아가 라파즈의 한국진출 10주년을 기념해 대대적인 해비타트 운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라파즈그룹의 한국 현지법인인 라파즈한라시멘트와 한국라파즈석고보드는 25일부터 5일간 전국 8개 해비타트 사이트 중 강원 춘천 지역을 전담해 대대적인 해비타트 운동을 전개한다. 이번 춘천 해비타트 현장에는 라파즈코리아 임직원 및 가족, 협력업체, 국내외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할 계획이다. 라파즈코리아는 올해로 9년째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는 시멘트, 석고보드 등 총 1억 3,000만 원 상당의 물량과 인력을 지원한다. 이 회사는 지난 2000년부터 이 행사를 지원해 왔다.

시멘트社, 유연탄 때문에 또 운다

(2008. 8. 26)

국내 시멘트업체가 중국 정부의 유연탄 수출관세 부과방침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부과된 관세 만큼 수입단가가 높아지는데다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유연탄가격이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유연탄 수출 관세를 10% 부과하면서 시멘트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는 유연탄 수출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수출관세를 부과하면

유연탄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국내 유연탄 수입 가격이 10% 가량 인상된다. 특히 기존 연간 계약분도 관세 대상에 포함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연탄 수입 연간 계약을 했지만 그 부분도 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연간 계약 금액보다 10% 수입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 관세 부과는 중국 정부가 중국내 유연탄 소비량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06년말부터 중국에서 유연탄 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기 시작했고 울들어서는 유연탄 수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중국 내수 공급량을 맞춰왔다. 이번 수출 관세 부과 조치 이후에도 수출물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중국정부의 또다른 규제가 예상되는 것도 이때문이다. 유연탄을 주로 소비하는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중국발 악재에 속수무책이다. 러시아·호주산 유연탄을 중국산의 대체재로 알아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중국산 유연탄을 사용하는 쌍용양회는 현재 러시아·호주산 유연탄을 수입하기 위해 현지와 접촉중이지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이 역시 원가부담으로 작용하긴 마찬가지다. 유연탄 국제 시세는 지난 3월 톤당 140달러에서 지난 7월 11일 210달러로 수직급등했고 최근에는 185달러에서 195달러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현재 중국산의 경우 톤당 200달러로 다시 상승하면서 전체 유연탄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중국산 유연탄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호주산 유연탄은 지난 7월초 톤당 191달러로 최고치를 이루다가 지난달 7일 152달러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주 중국 정부의 수출관세 조치가 나오면서 톤당 165달러까지 치솟았다.

한일, 공주에 연구·생산 복합단지 조성

(2008. 8. 26)

한일시멘트가 충남 공주지역에 친환경 시멘트공장과 연구·생산복합단지를 짓는다. 한일시멘트는 최

근 공주시청에서 이준원 공주시장과 한일시멘트 최병길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와 '공주 연구/생산 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한일시멘트는 이르면 이달부터 공주 의당면 가산리 60-1번지 일원에 550억원을 투자해 2011년까지 테크니컬센터(연구소)와 건조시멘트 몰탈(브랜드 레미탈) 공장을 이전한다. 2012년까지는 레미콘 공장 등을 최신 환경안전장치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생산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일시멘트 최병길 부사장은 "이번 의당 가산리 복합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통해 지역과 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2년 12월 복합단지가 완공되면 공주 지역은 120여명의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주)쌍용-쌍용양회, 시멘트 공동경영”

(2008. 8. 28)

한때 쌍용그룹에서 한술밥을 먹다 헤어진 쌍용과 쌍용양회가 시멘트업체를 공동 경영한다. 2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종합상사 쌍용과 쌍용양회가 참여한 대한기초소재 인수가 마무리됐다. 쌍용 관계자는 “본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로 금명간 기업결합승인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경우 쌍용과 쌍용양회는 대한기초소재의 경영권을 본격 행사함으로써 공동 경영의 깃발을 올리게 된다. 이번 대한기초소재 인수는 쌍용이 대주그룹 계열 대한시멘트로부터 대한기초소재 지분 36%를 취득하고, 사업상의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 쌍용양회가 대한시멘트 및 개인주주로부터 대한기초소재 지분 30%를 취득하는 공동 투자로 형태로 이루어졌다. 대한기초소재는 전북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슬래그 시멘트업체로 연간 167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난해에 매출 477억원, 영업이익 2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슬래그시

멘트는 제철소의 용광로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일반 포틀랜드시멘트와 혼합한 제품. 일반시멘트보다 화학 저항성, 내해수성이 강해 해안공사, 오폐수 처리물공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 회사는 군산공장 외에도 안정적인 포틀랜드시멘트의 공급을 위해 중국 산둥성 엔타시에 연산 200만톤 이상 규모의 공장을 가동중이다. 쌍용양회는 IMF 외환위기 이전에 쌍용그룹의 모기업이자 쌍용의 최대주주였다. 지금은 쌍용의 최대주주가 모건스탠리의 사모펀드로, 쌍용양회도 일본 태평양시멘트가 최대주주로 바뀌면서 완전히 남남인 관계다. 하지만 양사는 쌍용이 중국 유연탄을 수입해 쌍용양회에 공급하고 연간 350만톤에 이르는 쌍용양회의 수출을 독점하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대한기초소재 인수를 통해 쌍용은 제조업의 경험을 쌓으면서 유연탄, 시멘트 수출입 규모를 확대하게 된다. 쌍용양회도 슬래그시멘트 사업 영역을 더 넓힐 수 있게 된다. 두 회사는 대한기초소재 인수 후 3년내에 매출 700억원, 영업이익 60억원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시멘트 중 중금속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

(2008. 8. 29)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재활용 폐기물 시멘트의 중금속 유해성이 사회문제화(2007. 10. 언론보도)됨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시멘트는 물론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 공시체를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어 재질을 시험할 때 쓰는 콘크리트 조각을 대상으로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시멘트 공시체 및 구조체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국내산 시멘트의 중금속에 대한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시멘트 생산시 부원료·보조연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을 정하는 “Positive list 제도” 도입과 소비자 보호를 위

하여 제품별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에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시멘트는 국내산 10개 제품과 외국산 10개 제품(중국 2, 일본 3, 미국 3, 인도 2) 등 총 20개 제품, 콘크리트 공시체는 서울 SH공사에서 제공한 10개였으며, 총크롬 등 6종 중금속의 함량조사와 용출 실험을 하였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 공시체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시멘트에서 6가 크롬은 국내·외산 시멘트 모두 국내 자율기준(30mg/kg) 이하였다. 6가 크롬 이외의 중금속은 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조사표본수가 적어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콘크리트 공시체에서는 모든 중금속 항목에서 시멘트 자체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몰탈 제조시 자갈 및 모래 등이 혼합되어 시멘트의 중금속 함량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 공시체의 중금속 용출량을 폐기물공정시험법으로 조사한 결과 시멘트의 중금속 용출 평균(mg/L)은 국내산의 경우 총크롬 1.16, 6가 크롬 1.07, 외국산은 총크롬 0.49, 6가 크롬 0.50으로 국내산이 비교적 높았고, 나머지 중금속은 불검출 수준의 매우 낮은 농도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공시체도 함량실험에서와 같이 시멘트보다 콘크리트 공시체가 모두 불검출 수준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공시체에서 용출되는 중금속의 안전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의 수도 관련 자체 시험법(ANSI-61 2007a)에 따라 산(pH 5), 알칼리(pH 10)의 액성 조건으로 용출시험을 한 결과 산, 알칼리 조건 모두 불검출 수준으로 조사되어 신축공동주택에 사용된 콘크리트 공시체는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은 없으나 신축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구조체의 실내공기질 중 중금속은 2007년도 서울지역 외기의 중금속 농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유해성 논란이 있을 경우 그 원인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요인을 적극 해소할 것이라

고 밝혔다.

초고강도 특수시멘트 잘 팔려

(2008. 8. 31)

초고층 건축물의 증가, 해상 구조물의 건설 등 날로 첨단화하는 건축·토목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부가가치를 가진 특수시멘트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쌍용양회는 최근 액상고무(라텍스)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베스(VES)시멘트 1만톤 누적 출하 실적을 올렸다. 베스시멘트는 '초속경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용 시멘트'라고도 하는데 여성용 화장품인 파우더 수준의 고분말도를 가진 제품으로 화학적 안정성이 탁월해 콘크리트 타설 3시간만에 25MPa의 강도를 낸다. 또한 해상 구조물 분야에서도 다기능성 특수시멘트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시공중인 총연장 21km의 인천대교에 사용되고 있는 내해수성 시멘트가 한 예다. 내해수성 시멘트는 해양 구조물의 콘크리트 구조를 치밀하게 만들어 염분(염화물이온) 침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100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특수시멘트로 현재 해양콘크리트 분야에서 차세대 시멘트로 각광받고 있다.

동강시스타 추가자금 확보 비상

(2008. 9. 2)

지역 폐광대체사업으로 추진중인 동강시스타가 추가 사업자금 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동강시스타는 현재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200억원, 영월군 156억원, 강원랜드 150억원 등 공공자금과 시멘트 3사 100억원, 시공사 출자금 100억원 등 민간자금을 합쳐 모두 700억원 가량의 자금을 마련했다. 그러나 1, 2단계 사업계획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1,500억여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해 강원랜드 203억원 추가출자와 강원도 출자 등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달 조기송 대표이사를 제외한 강

원랜드 임원진 일괄사표와 열병합발전설비 사업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한 고강도 검찰수사가 표면화되면서 강원랜드의 추가출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가 동강시스타에 추가 출자하기로 한 203억원은 동강시스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포함된 골프장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강원랜드 이사회를 통과한 사안이지만 일련의 사태가 악재로 작용, 출자 지연 등이 우려되고 있다. 강원랜드 경영권에 중대변수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통과된 사안이라하더라도 번복 등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회사는 물론 주민들이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최모(48)씨는 “주민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동강시스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출자약속은 반드시 조기에 이행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약속이행 여부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강시스타 관계자는 “추가출자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강원랜드 상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멘트업체들 ‘그린 경영’ 앞장

(2008. 9. 8)

시멘트업체들이 타업종보다 가장 앞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린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10월 국내 업계 최초로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결의한 이후 대체연료 사용 확대, 자원순환자원 이용 촉진, 고효율설비 도입 등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폐열발전시스템을 도입해 전력비를 절감하는 한편 혼합시멘트 생산 확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현장 곳곳에 적용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현재 동양·아세아·라파즈시멘트 등이 폐열발전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이중 동양은 최근 폐열발전소 개조로 발전량을 크게 높여 전력사용량을 기존보다 13% 이상을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외에 성신양회 등은

폐열발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폐열발전소 건설에 300억~4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쉽게 나서지 못했으나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ESCO) 자금을 지원받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SCO 자금으로 폐열발전소를 완공하면 매월 납부하는 전력비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초기자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평가다. 폐열발전이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온의 가스를 폐열회수보일러의 열원으로 사용,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슬러그파우더 등을 섞은 혼합 시멘트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기존 시멘트에 슬러그 등 혼합물을 섞으면 혼합량만큼 시멘트 생산량이 줄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한다. 이외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배출가스 측정시스템 구축 등으로 온실가스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시멘트 관계자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배출가스 함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환경부 중앙 컴퓨터에 전송하는 시스템 TMS를 구축해 외부감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전기집진기보다 먼지의 필터링이 우수한 백필터를 달아 비산먼지 배출을 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생산원가의 20~30%를 차지하고 온실가스를 대거 배출하는 화석연료인 유연탄을 얼마나 대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은 폐유, 폐타이어 등 폐자원 사용량 확대이지만 자칫 ‘쓰레기시멘트’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어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업계와 정부간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다음달이면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결의한지 1년이 된다”면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 줄이기로 했지만 정부는 7~8%까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업계 불황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영월 ‘쌍용지역살리기 추진위’ 구성 (2008. 9. 9)

쌍용지역 주민들이 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지역 기관·단체·주민 대표 등은 이달초 침체된 지역 경기를 회생시키기 위해 쌍용지역살리기 추진위원회 발기인 총회를 갖고 활동방향 등을 협의했다. 주민들은 이날 총회에서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계획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추진위 활동을 위해 김원태 쌍용지역주민협의회장을 추진위원장으로, 이강록 쌍용판넬대표를 부위원장에 각각 선출하고 은회원 서면노인회 쌍용분회장을 감사에 임명했다. 쌍용지역은 영월 서남권에 위치해 신설 국도 38호선을 통해 영월로 진입하는 관문지역으로 쌍용양회 영월공장 등이 가동되고 있다. 석회석·시멘트산업 중심지로 지역경기가 활발했던 쌍용지역은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시멘트공장 환경오염 논란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시멘트 제조시설의 순환자원 사용기준 마련키로

- 한국양회공업협회,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 발표 -

(2008. 9. 11)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순환자원(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질기준

과 관리방안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순환자원 사용 기준에 대한 관리실태 확인 및 정보공개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토록 하여 일부에서 제기하는 유해성 논란 및 불안감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양회공업협회(회장 김효일, 이하 양회협회)는 8일 「시멘트 제조시설의 폐기물 사용 자율기준」을 통해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소성로에 투입되는 순환자원의 제조공정별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자율기준의 특징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 순환자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데 있다. 이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사용금지에는 물론 유해성 논란이 큰 폐기물에 대해서도 투입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고 부원료의 총크롬은 1,600mg/kg으로 제한하며 보조연료는 재활용제품인 RDF, RPF의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의 에너지화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결과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검사주기를 설정·관리토록 하였으며 품질기준에 미달시 순환자원의 반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운반·보관·투입시에는 외부유출 및 비산방지를 위해 밀폐시설, 덮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이번 발표와 관련,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투입되는 순환자원의 품질기준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 주관으로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한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더라도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